

(주)잉크테크

대표이사 : 정광춘 사장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4

전화 : (031)493-6425



1. 프린터는 달라도 잉크는 잉크테크

1990년대는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가 움트기 시작한 시기였다.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페이지와 핸드폰,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현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기술의 태동기였으며 시작점이었다. 정광춘 사장(KAIST, 이학박사)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국내 처음 잉크젯프린터에 리필 개념을 도입하는 비즈니스를 구상하였고,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수입카트리지의 대체제품을 생산하여 연매출 300억대의 기업을 일궈냈다.

90년대 초 잉크젯프린터가 처음 시장에 선보였을 때 레이저프린터의 뛰어난 속도와 해상도에 밀려 잉크젯프린터는 곧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잉크젯프린터에 사용되는 소모품을 공급하고 있던 당사로서는 그리 달가운 전망은 아니었으나 컬러 및 포토프린터의 출시와 잉크젯 기술의 비

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속도와 해상도의 향상 및 저렴한 비용으로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잉크젯프린터 시장은 매년 급격한 성장을 하였으며, 당사의 비즈니스는 성장 가도를 가게 되었다.

잉크테크는 '오늘 우리가 이룩한 첨단기술이 내일도 첨단일 수는 없다.'라는 모토를 통해 품질을 바탕으로 신뢰 뿐만 아니라 잉크젯이라는 핵심기술을 통해 응용 가능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유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신뢰를 키웠고 품질로 고객에게 보답하고 있다.

2. 브랜드의 세계화,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사업 초기부터 회사의 이름과 브랜드의 이름을 짓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과 잉크젯 기술의 활용을 뜻하는 'Ink'와 'Technology'의 합성어인 'InkTec'를 브랜드 명이자 회사명으로 정하게 되었다.

1992년 설립 이후 2년간은 국내에서 자리를 잡는 시기였으며 이후에 해외영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새로운 해외영업 매니저와 신규 해외영업 인력을 채용하면서 아시아와 미주시장 등 전세계를 목표로 의욕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1994년 첫 수출 이후 현재 2천만달러 규모의 수출 기업이 되었다.

1996년까지 자신의 고유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던 잉크테크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쌓아갔다. 먼저 기술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내 리필시장을 개척해 나갔고 매년 7~8회에 이르는 해외 전문전시회에 참가하여 120여개 국가에 'InkTec'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처를 확보하였으며, 세계 어떤 전산소모품 매장을 방문하면 어김없이 'InkTec' 브랜드를 만날 수 있을 만큼 업계에서는 세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잉크테크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시장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아시아 시장 등 대기업도 진출하기 어려운 곳까지 비약적으로 거래국가를 늘려나갔으며, 그 공로로 2001년 무역의 날에는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산업역군으로 자리 잡았다. 같은 해에 미국 볼티모어에 해외지사를 설립하였고, 2002년부터는 EU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현지 물류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20~30%의 꾸준한 외형 성장을 이어온 당사는 외환위기(IMF) 시절 리필 개념이 소비자에게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100%의 매출 신장세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자원재활용과 친환경적 특성을 지닌 당사 제품은 수입대체효과와 더불어 수출유망상품으로서 국내 대체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해외 유수의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

3. 잉크 제조기술 및 Nano Technology에서의 시장 선도

과거 잉크테크 성장의 중심이 잉크젯프린터용 소모품이었다면 앞으로는 잉크젯 분산기술 및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이 잉크젯 기술을 관련산업에 더욱 확장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나가게 됨으로써 당사에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당사는 현재 잉크젯프린터용 소모품과 프린터에 사용되는 전용지(특수용지)를 함께 공급하여 두 품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옥외 광고용 대형프린터(플로터)에 사용되는 소모품과 염료(수계), 안료(Pigment)형 잉크에서 솔벤트 잉크, 오일 잉크, 전사 잉크, UV 잉크 등으로 제품 영역을 확대 중이다.

당사 생산 설비들로만 반응, 분산기를 포함한 20여기의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입기, 충전기, 용착기 및 Coating 라인 등의 자체 제조 생산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연구기기 및 설비로는 분석기기인 HPLC, GC, FTIR, NMR, Weather-O-meter, UV-Vis. Spectrometer 등 40여점이 있으며, 개발장비로 Lab Mill, LFP 등 30여종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연구소에서는 현 Running Item 및 기능성 잉크 등 관련기술의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 Item의 연구, 개발 및 전자재료/유기합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개발 실적으로는 특허(국내/해외) 관련 총 35건 및 실용신안 11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DTP(Digital Textile Printing - 디지털 날염 프린팅)용 제품의 개발은 기존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서, 당사는 섬유(면, 나일론, 혼방 등)에 직접 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옷이나 넥타이, 쿠션 등을 제작하여 고객에게 배송하는 맞춤형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당사의 이러한 잉크젯 기술의 응용은 시대흐름에 맞추어 고객형 맞춤 서비스 뿐만 아니라 온 - 오프라인을 잇는 DTP컨텐츠 자체의 사업화를 통해 보다 넓은 시장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차세대 응용 분야 연구 방향은 잉크젯 방식을 활용한 전자 소재의 개발로서 'μm' 단위의 입자를 원하는 부분에 자유자재로 출력할 수 있는 소재 및 기술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반도체, 페이스트, LCD 발광소자 등의 적용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분야를 준비하고 있다.

흔히 나노(Nano)라 불리는 미립자 기술은 회사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분산기술의 연장이며 보다 세밀한 입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활용 분야 등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금년에는 국책사업 중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선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잉크젯 활용기술 분야에서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4. 비전기업으로의 성장

잉크테크는 '편리한 환경 창조,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이라는 가치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 뿐만 아니라 고객, 주주, 협력사 나아가 이 사회를 위해 인본주의 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하여 '잉크젯 활용기술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라는 비전을 수립, 항상 노력하고 있다.

그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프린터의 보급경로를 예측하고 신속히 대처하여 신규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이며, 'InkTec' 브랜드의 세계화, 기술과 품질 관리 우선 전략, 해외 대리점 신뢰 확보와 정보의 공유 등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다가올 미래의 주요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꼽히는 NT 분야에서도 잉크젯 기술의 응용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며 국내 제2공장 추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잉크젯 활용기술의 전문기업으로서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을 드높일 것이다.

잉크젯 활용 분야에서 기술을 발전시켜온 잉크테크는 세계에서 '잉크젯 활용기술'하면 잉크테크를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온 잉크테크의 노력과 CEO의 경영철학으로 볼 때 멀지 않은 시점에 달성하게 될 것이다.